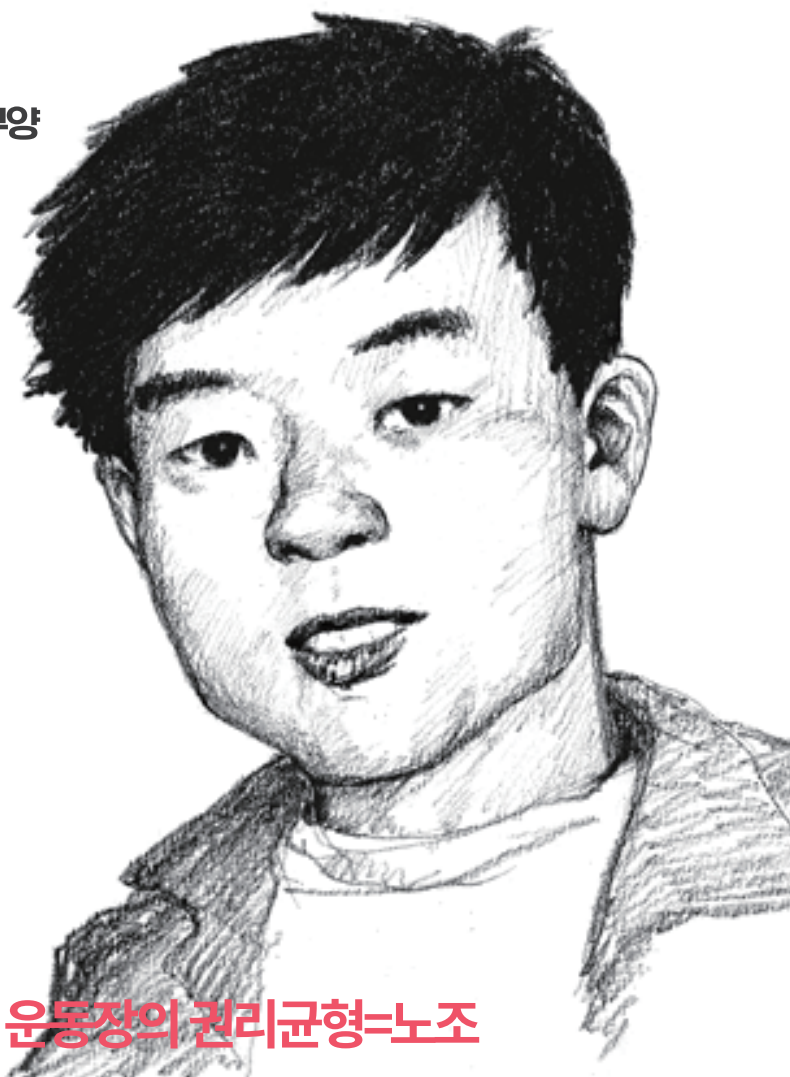




노동의 자존감 가슴에 품고 11.9 노동자대회



노동자 인간선언

매년 5월 1일 노동절, 11월 노동자대회는 이 땅에 자존감 충만한 노동자라면 꼭 함께하는 귀한 날이다.

11월 노동자대회는 1970년 전태일 열사의 분신항거를 기억하고 노동자의 인간선언을 되새기는 날이다. 그의 죽음을 계기로 청계 피복노동조합이 결성되었고, 독재와 분단 하에 탄압받았던 남한 노동운동의 불꽃이 되살아났다.

전태일 정신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노조를 지키고 가꿔온 30년 고참 사업장은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노조를 결심했던 처음 그 마음 잊지 않는 것, 그리고 그렇게 지켜온 권리를 더 많은 노동자가 누리도록 노력하는 것이 전태일 정신의 계승이라고 말한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노조가 없는, 무권리 상태의 노동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의 권리균형=노조

20년 전 우리 사회의 화두였던 ‘20:80 사회’의 격차는 10년 전 ‘1%와 나머지’로 더 심각해졌다. 압도적인 경제력을 갖춘 최상층은 외모, 학벌, 기호, 집안, 성격, 지성, 인맥 모든 것을 소유한다.

조국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최상류층의 삶은 검찰개혁과는 별개로 지금 우리가 붙들고 싸워야 할 문제를 보여주었다.

노동권에 대한 인식에서는 ‘좌우가 없고 위아래만 확실한’ 한국 사회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 균형을 잡는 일. 노동자 시민의 권리를 넓게 퍼뜨려 탄탄하게 쌓는 일은 스스로 권리를 알고, 찾고, 나누어 키우는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일이다.

탄력근로제, 노조법 개악 등 모든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를 갉아먹는 막장시도에 준엄한 경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우리는 11월 9일 노동자대회로 향한다.

2019.11.9(토) 오후3시 전태일 열사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2019 집단교섭, 현대케피코 함께 마무리한다



지난 9월 5일 13차 집단교섭에서 지부는 “우창정기에 평화가 확인되면 교섭을 다시 열고, 우창과 현대케피코까지 함께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모베이스로의 매각 이후 우창정기는 기존 단체협약 상의 고용과 단협승계에 관한 노사합의를 확인하고, 임금인상에도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14차 집단교섭이 10월 24일(목) 열렸다. 사용자는 공동요구안 중 노동안전활동시간을 월 34시간으로 추가 제시, 수용하기로 했다.

정구양 지부장은 “현대케피코 교섭 속도내서 마무리하고, 11.7(목)에 전체 집단교섭 의견일치하자”고 했다.

현대케피코지회는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올 한 해 노사 워크숍을 진행하며 교섭을 이어왔지만, 노사 간 입장 차가 너무 큰 것을 확인하고 임금체계 개선은 다음 해에 논의하기로 했다. 이후 올 해 임금교섭을 진행한 지 1달이 지났다.

지부는 “마무리 함께 할 수 있도록 빨리 정리해주기 바란다. 늘어지면 지부차원의 대책 고민하겠다”고 뜻을 전했다. 다음 교섭은 현대케피코 교섭 상황에 따라 일정과 방안을 조율할 예정이다.